

데이브 매튜슨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16

요한계시록 11장 성전과 두 증인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성전과 두 증인에 관한 16회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저자가 활용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미지가 무엇을 묘사하고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두 이미지 사이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개한 첫 번째 것은 요한이 11장의 처음 두 구절에서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은 성전과 성전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11장의 나머지 부분은 밖으로 나가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지배합니다. 증인이 되시더니 결국에는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저희를 죽인 후에 저희가 살아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느니라. 11장은 마침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끝납니다. 그것은 9장의 여섯 번째 나팔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이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성전의 형상 또는 상징인 첫 번째 형상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것인데, 이는 질문이 아니라 실현해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출발점은 이것이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아온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일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사원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실제 사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종류의 물리적 구조를 말하는 건가요? 이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이 있었습니다. 출발점은 아마도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미지로 구약의 배경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나중에

요한이 새 예루살렘 슬래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환상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본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전 이미지는 예루살렘 도시에 적용되고 그 도시의 크기가 측정됩니다. 그것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자극제와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저자나 선견자 에스겔은 여행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한이 이제 낭독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은 여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본문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5장입니다. 여기서 스가랴도 측량을 읽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한의 이미지는 에스겔서, 스가랴 2장에 나오는 묵시적인 환상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 요한은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계시록 해석에 관한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 모든 것을 조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가지 일반적인 선택은 이것이 말 그대로 재건된 종말의 성전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4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여전히 미래에 있을 것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의 견해와 관련이 있으며, 미래의 종말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사건을 포함하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어지는 시간 시나리오입니다. 그 중 일부는 에스겔 40-48장과 같은 본문의 성취로 실제로 재건된 성전을 예언하는 11장을 읽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일반적인 이해는 이것이 성전, 즉 나중에 있었던 1세기의 문자적인 성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파괴됨.

따라서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거의 모든 사건, 모든 사건이 이미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의 견해와 관련이 있는데, 오직 1세기의 견해만이 과거주의적 견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성전은 실제로 서기 70년에 파괴되기 전 서기 1세기에 세워졌던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견해는 대략 서기 60년대 중반에 실제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견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그것을 좀 더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인 미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며, 성전 이미지를 비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 즉 제가 동의하는 네 번째 견해는 여기서 성전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대한 은유이지만 아마도 서기 1세기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성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단순히 교회는 서기 1세기부터 존재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또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역사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11장 후반부의 일곱째 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을 은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즉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요한이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구약의 비유를 자주 사용했고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에 적용한 것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구약성서에서 성전 이미지를 취하여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교회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독자들에게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서 그는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진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잇돌이 되시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성령은 구약의 성전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요한은 한 교회에게 그들이 이기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은 구약성서의 성전 이미지와 물리적인 성전 이미지를 취하여 이제 그것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1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성전이 문자 그대로의 성전, 즉 1세기에 세워졌을 성전이나 미래에 문자적으로 재건될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것은 아마도 1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의 독자들을 언급하지만 전체 기간에 걸쳐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할 것입니다. 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John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콤란 공동체와 사해 두루마리는 종종 구약의 시간적 이미지를 가져와 자신들의 공동체에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체들을 성전의 건축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콤란 공동체가 스스로를 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해 바닷가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배도하고 악하며 참된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콤란 공동체조차도 언젠가는 성전이 재건축될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완성이시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성전을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에 이르면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원래의 성전이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시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인 성전을 보지 못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바로 성전이다.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으로 보고 그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단, 여기서 성전의 일부만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뜰 곧 바깥뜰이라고 한 부분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주어 42개월 동안 밟히게 하려 함이니라. 문제는 이것이 무엇을 측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둘째, 왜 성전 부분을 측량하여

이방인들에게 던져 42개월 동안 짓밟게 하지 않습니까? 우선 여기서 측정한다는 행위는 소유권과 보호를 암시하고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스가랴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사실은 측량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성전인 성전의 측량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인과 나팔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뿐 아니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측량함을 주목하라.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다른 유형의 신자 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저자는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 합쳐서 이것은 성전 내의 뚜렷한 요소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지금 측량되는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며, 그들의 보존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제 질문은 왜 성전의 제단 뜰이 제외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는 것 같으나 이제는 밖에 버려져 이방인에게 복종하고 짓밟히게 되었느니라. 두 가지 가능한 설명.

그 중 하나는 측량할 수 없는 제단 뜰이 불성실한 교회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2장과 3장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단 두 교회만이 신실했고 그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타협에 너무 열중했고, 한 교회는 너무 안주해서 많은 교회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몇몇 교회에는 신실한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고 타협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사들을 용인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가능성은 성전의 측정되고 보호되는 부분이 2장의 신실한 교회들과 2장과 3장의 신실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때 밖으로 던져진 성전의 부분은 불성실하고 타협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11장의 나머지 부분과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이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가능성은 제단 뜰을 제외하고 성전의 일부를 측정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암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본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척량이며 성전의 중심이요 지성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제단이 있는 곳이니라 이것은 교회가 여전히 열국과 로마제국의 손에 박해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의해 보호되고 보존되어 영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일부가 보존되고 보호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영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부가 밖에 버려져 짓밟히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될 것이다. 여전히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나라는 여전히 민족과 로마 제국의 손에 고통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며,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성도들이 묘사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장에서는 그들이 인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12장과 13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보호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탄의 손, 짐승의 손,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다는 동일한 이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도록 허용된 기간은 아마도 바깥뜰이 측량할 수 없고 열방에게 짓밟히는 것으로 다시 상징된 것으로, 42개월의 기간입니다.

계산해 보면 42개월이 삼년 반을 말하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4절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때와 때와 반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7장과 25절, 9장과 27절, 12장과 7절에서 그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본문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지만 아마도 John이 3년 반, 문자 그대로 시간, 시간, 그리고 반 시간, 3년 반이라는 개념을 얻은 곳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본 다른 숫자나 다른 시간적 명칭과 마찬가지로 이 42개월도 엄격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42개월이 될 때까지 매일 표시할 수 있도록 달력에 계산되는

문자 그대로의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42개월은 대략 3년 반과 같습니다.

그 대신, 저자가 사용한 42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될 시대의 성격과 의미를 나타내고 해석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아마도 42개월이 교회의 전체 존재에 걸쳐 있음을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1세기에 교회는 이 42개월 기간에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2개월이 지나면 끝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42개월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숫자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 존재의 성격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기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존은 40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얻었나요? 40이라는 숫자는 구약성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1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엘리야가 두 증인 중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7장과 18장, 특히 신약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엘리야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가 3년 반 중 하나로 보이는 야고보서 5장 17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나 또한 민수기 33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이 민수기 33장에서 40개의 진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40이 심판과 시험의 개념을 모두 의미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42개월은 교회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스트 기간 중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우리는 40이라는 숫자도 보존을 의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 42가 말하는 것은 특히 구약성경 본문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에서 42를 사용하는 방식은 문자 그대로의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성격을 다음 중 하나로 해석하는 의미입니다. 보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심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전을 측량하는 이미지를 통해 교회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으로서, 세상의 성전으로서 교회는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와 세상의 박해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존재의 성격은 보존의 시대인 동시에 시험과 고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시작하는 다음 이미지는 요한이 그린 다음 이미지이며, 그 다음에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언제 이런 일을 합니까? 먼저 3절에 1260일 동안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1290일을 기초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John의 숫자 1260은 30개월, 실제로는 30일 월의 보다 일반적인 표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1260일은 대략 42개월, 즉 3년 반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나 교회 존재 기간을 어떻게 특징짓고자 하는지에 따라 이 숫자를 3년 반, 42개월, 1260일 등으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즉, 1260일, 42개월, 3년 반은 모두 똑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1세기에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존은 그 일이 200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회의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험하고 보존하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요한이 우리에게 7년의 환난 기간을 제시하기 위해 이 숫자들을 더할 의도가 있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부 신학적 구성이나 일부 신학적 부분에서는 요한계시록이 7년 환난 기간을 묘사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Daniel과의 70주 연결을 통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9장에서 70주에 대한 다니엘의 논의를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3년 반, 42개월 또는 1260일의 기간 중 두 기간을 더하면 7년 또는 7년 환난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요한이 이 기간을 추가하여 7년이라는 기간에 도달하도록 의도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John은 동일한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히 다른 기간을 사용하거나 42개월, 3년 반, 1260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즉, 기간은 교회의 존재가 1세기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일곱 번째 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투쟁과 존재를 어떻게 묘사하고 싶은지에 따라 요한은 이러한 다른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의 존재 기간을 3년 반으로 묘사할 수 있는데, 3년 반은 강렬한 어떤 것, 교회의 박해와 고난을 가리키는 어떤 것을 암시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년 반은 일곱의 반이니 일곱은 온전함과 온전함의 수니라. 3개 반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3년 반 동안 교회는 말하자면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재판의 시간입니다. 극심한 핍박이지만 끊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시간, 시간, 반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늘어나는데 일이 굴러가다가 반 시간만 지나면 시간이 끊어집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는 극심한 박해가 되겠지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잘려져서 완전한 숫자 7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42개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요한은 구약의 배경에 비추어 교회의 존재를 시험의 때이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보호의 때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1260일을 사용함으로써 저자는 다니엘 자신이 예상했던 시험의 기간을 회상할 수 있으며 이제 교회는 그

기간에 들어섰고 교회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다시 성취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발생합니까, 아니면 이 기간이 42개월, 1260일, 또는 3년 반입니까? 이는 교회 전체 시대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2000년 후를 바라보지만 요한은 교회의 투쟁의 성격과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질 교회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환난의 기간, 즉 삼년 반, 42개월, 1260일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된다고 요한이 제안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기까지 신실한 증언이 이 환난 기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따르는 교회는 고통과 죽음에 직면하여 동일한 신실한 증언에 참여합니다. 사실,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 이것이 교회 역사의 나머지 부분을 특징짓는다고 확신하고 싶다면, 여우의 순교서와 같은 것을 선택하면 되고, 심지어는 그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제3세계 국가 등의 교회를 방문하여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는 정도를 살펴봅시다.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칠 걱정 없이 여전히 상당한 양의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곳에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11장 3절부터 시작하여 이 42개월, 즉 1260일 또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이 두 증인의 때를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두 증인과 그들의 경력이 말하자면 이 기간 동안 두 단계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두 증인이 나가서 세상에서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어떤 해로움이나 반대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본문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심각한 결과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명백히 교회는 증거를 수행하도록 허용되거나 이 두

증인이 증거를 수행하도록 허용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7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증거를 마친 후에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그들을 죽이는 것이 허락된다고 하였느니라. 따라서 3~6회에는 무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갑자기 그들은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들을 죽이는데, 온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을 기뻐하여 잔치를 벌인다. 그렇다면 나는 묻고 싶습니다.

11장에서 겔보기에는 무적이지만 이 두 증인의 취약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증인의 신원이 누구인지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출발점은 이 증인이 누구이든간에 우리가 다른 모든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두 증인은 실제 두 사람을 지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두 명의 증인만을 지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우리 정치 만화에서 잉클 샘(Uncle Sam)과 같은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잉클 샘(Uncle Sam)은 전체 정부를 대표하고 한 사람이 아닌 전체 그룹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고독한 사람.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두 증인은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에 배경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유대 묵시록에서는 예를 들어 모세와 에녹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구약의 몇몇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에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기다림, 엘리야의 도래에 대한 기다림이 일어나는데, 구약에서는 이 둘이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 이 두 증인에게는 하늘을 닫아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세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것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전염병.

따라서 이 두 증인의 주요 모델은 아마도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들 중 한 사람은 엘리야의 기적을 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모세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 중 한 사람은 모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물을 피로 바꾸고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모세와 엘리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름으로써 엘리야와 모세 모두 여기의 두 증인처럼 구약에서도 선지자적 기능과 선지자적 사역을 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인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다시 살아난 모세와 엘리야라고 확신했습니다.

종종 이것은 그 기간 동안 지상 생애의 마지막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의 미래의 시기와 연관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두 증인을 1세기의 역사적 인물들과 연관시키려고 시도했는데, 공통점은 한 사람은 바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우리는 두 개인을 상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어쩌면 두 명의 정확한 개인을 상징하지 않거나 두 명의 정확한 개인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논평을 통해 나는 두 사람이 증거하는 교회 전체를 상징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1세기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 교회 전체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11장의 끝 부분과 11장에서 일곱째 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신실한 증인이자 세상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교회의 상징적인 비전 또는 이미지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교회의 일부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두 증인은 박해와 반대에 직면하여 세상에서 신실한 증언을 수행해야 하는 교회 전체의 예언적 기능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몇 가지 이유는 무엇보다도 3절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나가 증거함으로써 이것이 교회가 이전 장들에서 하도록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2, 3. 그래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문제 중 하나는 교회, 적어도 일부 교회가 이교 로마 통치와 타협함으로써 그들의 신실한 증언을 타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했던 두 교회는 신실한 증거와 타협을 거부한 것 때문에 사실상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1장에서 소개했던 개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셨습니다.

안디바는 3장에서 믿음을 위해 죽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본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의 교회는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거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이교 세계와 타협하여 아직 증거를 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이 4절에서 두 등대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실제로 스가랴 4장의 표현을 사용하여 두 감람나무로 식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스가랴 4장과 성전의 두 등잔대와도 동일시됩니다. 성전 이미지를 교회에 적용하는 또 다른 표시는 두 개의 등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 등잔대와 동일시함으로써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 중 하나는 1장 20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다니셨던 등잔대, 즉 금등대가 일곱 교회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잠시 후에 왜 두 사람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20절에서 본 내용과 각 장의 확인을 고려하면 이 두 증인을 두 등잔대로 확인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교회 중 2장과 3장은 등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증인이 예언 사역에 있어서뿐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라는 주제와 요한이 이미 1장에서 등대를 교회로 식별했다는 사실은 내 생각에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교회 전체를 상징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것을 할 때 이것은 단지 미래의 어떤 기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역사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그 당시부터 시작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한의 이해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백성에게 상을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교회는 적대감과 신랄한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음 질문은 '왜 2위인가?'입니다. 왜 증인이 두 명뿐입니까? John이 문자 그대로 표현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왜 7이나 10 또는 그와 유사한 숫자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적어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그것들은 배타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다시 구약성서로 돌아가려면 신명기에 따르면 소송이 마무리되고 법정에서 증언이 지속되려면 두세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증인.

그래서 그것은 완벽하게 맞을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주제, 즉 교회는 증인이라는 주제로 요한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신명기에서 이 개념을 끌어내었고, 이제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신명기의 규정에 기초하여 두 명의 증인을 상상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2장과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오직 두 교회만이 그들의 증거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다섯 개가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증거한 교회 중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두 교회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John의 모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두 교회는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할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John이 증인을 단 두 명으로 묘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1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당시 두 증인과 성전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측량한 성전은 아마도 이것들일 것입니다. 요한이 여러 번 본 것처럼, 이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두 가지 다른 관점이나 같은 것을 보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보존되었으나 박해를 받는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다른 관점, 즉 신실한 증인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결도 살펴보세요.

사원과의 연관성과 관계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교회는 분명히 성전으로 상징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인 스가랴 4장의 등대와 동일시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배경이 되는 구약성경 구절 중 하나인데,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동일시하는 것은 성전과 관련된 연관성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성전 이미지는 2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는 등잔대를 사용하여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성전과 교회의 관점에서 본 것인데, 이제 3절에서는 신실하게 증거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한 가지 암시가 이미 3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요한은 그들을 베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회개의 개념을 암시할 수도 있지만 심판 때문에 애도한다는 개념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적어도 11장에서 그들이 맡게 될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심판을 초래하는 메시지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4절과 6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사역을 시작하거나 증거하는 자로 묘사되는데, 흥미롭게도 5절과 6절에 보면 전도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건 폴의 요점이 아닙니다. 요한의 요점은 우리가 말했듯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혹은 신학적인 토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고통받는 증언은 8장과 9장에서 일어난 일과 나팔 심판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장에서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과 9장의 나팔 심판은 교회의 고난받는 증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장과 9장에서 인류에게 심판을 쏟아 붓는 이유는 그들이 신실하게 증거하는 교회를 배척하고 심지어 신실한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삼킬 것이요. 6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들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 특히 그것을 피로 바꾸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8장과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저자는 구약성경 본문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기억하고 이제 11장의 증거하는 교회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8장과 9장의 심판은 분명히 5장과 6장의 두 증인의 신실한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4절과 6절에서 분명히 증인들이 방해받지 않고 반대 없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치려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 그런데 7절부터 장면이 갑자기 바뀐다.

7에서는 증인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을 대적하고 죽일 수 있는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 이 짐승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와 그들을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더 자세히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해를 입힌다.

따라서 12장과 13장은 7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짐승과 무저갱에 대해서는 12장과 13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무저갱, 즉 짐승으로 시작하는 짐승은 실제로 유대 묵시문학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자체에서 짐승은 악마적인 인물이며 종종 억압적인 인물과 연관되는 악한 인물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해를 끼치는 억압적인 통치자 또는 억압적인 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형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해를 끼치는 악한 통치자와 악한 제국과의 사용과 해석, 동일시와 함께 이미 요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또 다른 억압적이고 신이 없고 우상 숭배적인 제국을 지칭하기 위해 짐승을 다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는 그것이 로마제국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9장에서 무저갱에 대해 소개했는데, 그곳에서 이 메뚜기 형상들이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심연은 또한 요한이 제시한 사용법에 포함되는 의미와 사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짐승은 사악한 악마적 존재들의 집이나 감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이제 자신들이 핍박하는 진정한 근원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다른 정부들과 나라들과 백성들과 통치자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하던 동일한 영, 동일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동일한 포박하고 악하며 마귀적인 영이 지금 다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 1세기의 형태로, 적어도 로마제국의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2장과 13장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분명히 짐승이 승리하여 4절과 6절에서 말했듯이 두 증인은 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짐승이 승리합니다. 두 증인이 취약한 것처럼 보이도록 승리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을 보는 방식은 이 두 증인에 대한 연대기적 설명이나 순차적인 이야기로 읽는 것이 유혹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선 성공하고 그 다음에는 무적이 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들이 실제로 취약해지는 짧은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나는 이것을 일련의 사건이나 시간적 진행에 관한 엄격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나는 Richard Bauckham이 이에 대해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한 영국 학자는 아마도 11장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교회 생활의 일련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로 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교회를 성공의 시기를 보내고 취약한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교회를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읽는 것이 좋다.

한편으로 교회는 보호를 받고 심지어 무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손에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보호되고 무적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제국과 기타 불경건한 나라들의 공격과 박해에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Bauckham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능은 교회의 진실에 대한 비유와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신실한 증언을 유지합니까? 세계는 어떻게 구현됩니까? 그것은 무적일 것이며 그 증거를 수행할 것입니다.

동시에 박해와 죽음에도 취약할 것입니다. 처형당한 두 증인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본문은 그들이 시체를 묻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세기에 시체를 장사하지 않는 것은 극도의 불명예나 수치심을 나타내는 표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욕에 모욕을 더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신을 거리에 내놓는 것은 큰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로테스크한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출되고 매장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도시를 큰 도시라고 부른다. 사실 여러 가지로 불린다.

우선, 그것은 Great City라고 불립니다. 다른 곳에서 바빌론에 적용되는 용어, 그리고 다른 곳, 특히 17장과 18장에서 그 용어를 접하게 되면, 이 경우 바빌론이 아마도 로마 도시를 가리키는 암호였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6장 19절, 17장 18절, 18장 10절, 16절, 18절, 19절, 21절, 18장 전체에서 우리는 큰 성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와 동일시될 바빌론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성읍은 8절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돔과 애굽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저자가 이 모든 도시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큰 도시로 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에서 구현되었지만 이집트와 소돔과 같은 다른 대도시에서도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제적이고 경건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국인 이집트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소돔은 악과 동등한 도시이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실한 증인을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구체화되고 포장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로마를 넘어 다른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이 도시는 재림 때까지 존재하며, 반역과 악과 우상 숭배를 구체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데 관심을 갖는 다른 도시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징은 특히 로마에서 성취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는 반역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도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렇습니다.

한 논평에서는 이곳을 세계 도시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인 이 도시에서 그들이 시체를 장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욕과 불명예의 표이며 수치의 표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이 그들에게 고통과 해를 입혔기 때문에 파티를 열고 기뻐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들이 죽기 전에 죽은 지 삼일 반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삼일 반은 아마도 삼년 반을 모두 기억하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략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될 때까지 무덤에 누워 있던 기간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 위하여 사흘 반 동안 거리에 죽어 누워 있다가 11절과 12절에 이르러서 온 세상 앞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살아나느니라.

여기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옹호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은 증거로 인해 정당함을 얻는 곳입니다. 11장 앞 절에서 그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는 배척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그 판결이 뒤집혀 이 두 증인이 일어나 그들의 의가 옳다 하느니라 지켜보는 세계의 눈앞에서.

여기에 있는 상징의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위성 TV나 웹캠 등 전 세계가 이 세 증인을 볼 수 있는 현대적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안되었지만 다시 한번 저자는 묵시적인 상징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무엇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현대 기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것이 단순히 그들의 옹호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사실 이 뒤에 있는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3일 반 동안 거리에 누워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총알을 던졌습니다. 11절에 보면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에게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라.

이것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 구절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인해 죽음을 경험한 에스겔 37장과 10절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호흡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날 날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마른 뼈의 그림이 모여서 그 발로 일어서느니라. 이제 그 언어는 입증된 증인에게 적용되는데 활용됩니다.

그 짐승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세상은 그들 때문에 환호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패배했다는 평결을 내렸고 그들의 증언은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어 그들의 신실한 증언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심으로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하십니다. 사실, 나는 이 본문이 잘 알려진 천년왕국 구절의 요한계시록 20장과 4-6장에서 더 자세히 전개된다는 것을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특히 13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우리는 부활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 큰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는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지진으로 성읍의 10분의 1 이상이 무너지고 그 성에 사는 70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겁에 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이제 우리가 이 반응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언어가 때때로 회심에 대한 응답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개종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8장과 9장에서 나팔 심판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이 거부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 9-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제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무릎은 강제로 굽혀질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 중에 어떤 허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본문을 강요된 경의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반드시 참된 회개나 참된 돌이킴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둘 다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중 일부는 강제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회개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Richard Bauckham은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실제로 회개의 행위이지만, 그것은 교회의 충실하고 고통받는 증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Richard Baucom은 8장과 9장이 회개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심판은 회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마침내 열방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은 교회의 신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어려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이 신실한 증인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진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응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15절의 시작 부분인데,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곱째 나팔을 보면서 다음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성전과 두 증인에 관한 16회기입니다.